

美중간선거, 하원 공화 우세·상원 팽팽

하원에서 민주당 의석 6석 공화당이 가져가면 다수당

미국 입법부 지형을 결정할 중간선거 개표가 8일(현지시간)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공화당이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앞서고 있고, 상원은 팽팽한 접전을 거듭하고 있다.

8일(현지시간) 에디슨 연구소에 따르면 현재까지 하원 전체 435석 가운데 공화당은 132석, 민주당은 75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민주당 현역 의원의 지역구 4곳에서 공화당 후보의 당선에 예상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에디슨 연구소는 분석했다.

현재 하원은 민주당 220석, 공화당 212석, 공석 3석인 가운데 공석을 제외하고 현 의석 기준으로 공화당이 민주당 의석 6석을 가져오면 다수당을 탈환하게 된다.

하원은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탈환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선거 직전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바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자체 분석을 토대로 하원에서 민주당이 55석, 공화당이 98석의 의석을

확보했다고 분석했다. 이 중 공화당이 민주당 지역구 2곳에서 이긴 것으로 나타났다.

CNN은 하원의 경우 민주당 93석, 공화당 157석을 각각 이긴 것으로 보고 있다.

상원은 예상대로 조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WP는 상원 의석 100석(선거를 치르지 않은 의원 65명 포함) 중 민주당 42석, 공화당이 41석을 각각 확보할 것으로 예측했고, CNN은 양당이 40석씩 확보할 것으로 분석했다.

상원 다수당을 결정할 스윙 스테이트(경합주) 중 조지아주는 민주당 라파엘 워녹 현 상원의원과 허셜 워커 공화당 후보 간 엇지락뒤치락하는 조접 전양상을 보인다.

개표 초반 워커 후보가 크게 앞서지만, 중반 이후 역전되면서 71.8% 개표 기준으로 워커 후보 49.4%, 워녹 후보가 48.6% 득표 중이다.

조지아주는 어느 후보도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하면 주(州)법에 따라 다음 달 결선 투표를 해야 한다.

또 다른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는 55.4% 개표 속에 민주당 존 페터만 후보(50.6%)가 공화당 메메트 오츠(47.0%) 후보를 앞서고 있다.

리 체프먼 펜실베이니아주 국무장관 대행은 일

부 투표소에서 투표가 늦게 시작돼 개표 시간이 미뤄졌으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며칠이 걸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역시 초반빙 양상이 예상됐던 위스콘신주에선 56.1% 개표 기준으로 현역의원인 공화당 론 존슨이 민주당 만델라 반즈 후보와 50%씩 득표하며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애리조나주에선 40.5% 개표 속에 현역인 마크 켈리 민주당 의원이 56.1%로 41.6%를 득표 중인 공화당 블레이크 매스터스 후보를 앞서고 있다.

'리틀 트럼프'로 불리며 차기 공화당 대선 후보로도 거론되는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재선을 확정했다.

역시 플로리다 상원인 공화당 소속 마르코 루비오 의원 역시 3선을 거머쥐었다.

메릴랜드에서는 민주당 후보인 웨스 무어가 주역사상 처음 흑인 주지사에, 매사추세츠에선 첫 성소수자(LGBTQ) 마우라 힐리의 주지사가 당선에 유력하다.

적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뉴욕주에서 이겼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백악관 대변인을 지낸 세라 허커비 샌더스는 아칸소 주지사 당선에 예측했다. /연합뉴스



폭우로 잠긴 도로 걷는 팔레스타인 어린이들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이 8일(현지시간) 폭우로 물에 잠긴 가지자구 북부 자발리아 난민보호소 부근 도로를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미·러,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핵군축 협정' 논의 재개 합의

세계 2대 핵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가 양국 간 핵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과 관련한 논의를 재개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미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뉴스타트 협정 관련 사항을 다루는 양자협약위원회(BCC)가 조만간 소집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뉴스타트 협정에 따라 BCC가 가까운 시일 안에 만날 것이라는 데 동

의했다"며 "BCC가 하는 일은 기밀이지만 우리는 건설적인 회의가 이뤄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CC는 원래 매년 두 차례 소집되지만, 작년 10월 마지막으로 열린 뒤로는 1년 넘게 일정이 잡히지 못하는 상태였다.

미국과 러시아가 2010년 체결한 뉴스타트는 실전배치 핵탄두 수를 1천550개 이하로 제한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전략폭격기 등 운반체도 700기 이하로 줄이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연합뉴스



8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시민들이 플로리다 주지사 선거 개표 방송을 보며 환호하고 있다. 플로리다 주지사 선거 개표가 약 85% 이뤄진 가운데 론 디샌티스 현 주지사(공화당)의 득표율은 58.9%로 재선이 유력해졌다. /연합뉴스

"러시아, 이란에 포획한 서방 무기 전달"

영국 스카이뉴스 "드론 공급 대가" 러시아가 이란으로부터 드론을 제공받는 대가로 포획한 서방의 무기를 넘겨주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영국 뉴스채널인 스카이뉴스가 8일(현지시간) 한 보안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지난 8월 20일 러시아 일류신(IL) 76 군용 수송기가 이란의 테헤란 메흐라바드 공항에 착륙, 1억4000만 파운드(약 2220억원) 규모의

현금과 함께 영국의 NLaw 대전차 미사일과 미국의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을 넘겨줬다고 주장했다.

해당 미사일들은 원래 우크라이나 군을 지원하고자 선적된 무기이지만 러시아 군의 수중에 들어갔다고 이 소식통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넘겨진 미사일은 이란혁명수비대(IRGC)가 서방의 기술을 분석해 복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습에 집중 투입하고 있는 이란제 드론 사헤드도 지난 2011년 이란이 포획한 미국의 정찰 드론을 분해해 입수한 기술을 토대로 개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이란은 과거처럼 이번 전쟁에서도 서방의 기술을 입수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테헤란 공항에 착륙한 러시아 수송기들은 이번 전쟁 기간 '자폭 드론'이라는 별명을 얻은 사헤드-136 100개와 좀 더 작은 드론인 사헤드-131 60개, 무장 드론인 모하제르-6 6개를 싣고 돌아갔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연합뉴스

극우 멜로니발 유럽 분열?

프랑스, 伊 난민선 거부 비난
멜로니-EU 간 전선 현실화 조짐

이탈리아의 난민 구조선 입항 거부로 난민 문제가 유럽 국가 간 외교적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여자 무솔리니'로 불려온 극우 성향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취임 후 줄곧 난민 수용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분열을 부추기고 있는 모습이다.

프랑스 정부 관계자는 8일(현지시간)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일에 대한 이탈리아 정부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며 "해양법과 유럽 연대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프랑스는 이탈리아의 입항 거부로 남부 시칠리아섬 인근 해역에 3주 가까이 머물던 난민선 '오션 바이킹' 호의 이주민 234명을 직접 수용하기로 했다.

프랑스는 이탈리아가 구조선을 받아들이면 이주민 수용 책임을 분담하겠다는 입장이었으

나, 이탈리아의 거부로 대치가 길어지자 결국 난민들에게 도움을 손길을 내민 것이다.

독일 등 유럽 국가도 자국 소속 구조단체 난민선의 입항이 거부되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독일 정부 대변인은 전날 "민간 해상 구조를 막아선 안 된다"며 "사람들이 역사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의 도덕적·법적 의무"라고 지적했다.

이탈리아는 지난 6일 독일 구조단체 'SOS 휴머니티' 소속 '휴머니티 1'호와 노르웨이 소속 '지오 바렌츠' 호 이주민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하선을 허용한 바 있다.

국제사회 비난이 커지며 남은 이주민 250명에 대해서도 이날 하선을 허용했지만, 각국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특히 멜로니 총리의 취임으로 난민 문제에 대한 이탈리아 정부의 강경 노선이 더욱 공고해지고 있어 유럽연합(EU) 주요국들과의 갈등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짝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